

광주·전남지역 傳統 婚禮服의 實態에 관한 研究

박 자 명* · 김 용 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raditional Wedding Clothes around Gwangju and Jeonnam Area

Ja-Myoung Park* · Yong-Seo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7. 2 투고)

ABSTRACT

This study first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es for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19th Century) and today through comparison. It also tries to discover what today's people are incorrectly aware of regarding the traditional wedding clothes particularly by survey. It ultimately aims to present constructive ways of solution against the illadvised and simplified deformation of the traditional wedding clothes.

When comparing the traditional wedding clothes from the late Chosun and its modern counterparts, Dan-ryung and Samo-kwandae is still used for bridegroom's dress. In case of bride's dress, several items such as Yeom-eui, So-eui and Hwal-ot have been disappeared while Won-sam can be seen today. There were found many additional differences not only in type of the wedding clothes, but also in its form and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advisory to take the wedding clothes worn by commoners and upper class as the basic form for today's traditional wedding clothes. In addition, diversified research should be carried on to make them broadly accepted by today's life.

Key words: traditional wedding clothes(전통 혼례복), Dan-ryung(단령), Yeom-eui(염의),
So-eui(소의), Hwal-ot(활옷), Won-sam(원삼)

I. 서론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 행해지는 의례를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 한다. 이러한 통과의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되지만,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예(禮)의 실천윤리에 의해¹⁾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일생동안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로 행해졌다.

그 중에서도 혼례(婚禮)는 가장 경사스러운 의례임은 물론 인륜(人倫)의 대사(大事)라 일컬어질 만큼 중요시되어 왔으나, 개화와 더불어 서양식 혼례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혼례는 점차 쇠퇴되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전통 혼례품 전시회와 전통 관혼상제 의식재현행사가 개최되고, 각 대학이나 지방에서도 전통 혼례식이 거행되는 등²⁾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또한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는 장소도 서울의 '成均館'과 '韓國의 집'을 비롯하여 전국의 향교(鄕校)나 군청 등 전에 비해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활문화와 더불어 서양식 혼례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획일화 경향으로 전통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행 전통 혼례복에 대하여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광주와 전남지역의 향교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전통 혼례복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 요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서 전통 문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인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전통 혼례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전통 혼례복 중 단령과 원삼을 중심으로 하였다. 현장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광주와 전라남도도 한정하여, 현재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는 향교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통 혼례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³⁾ 이에 따라 나주, 고흥, 화순, 보성 그리고 광주지역을 조사지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통 혼례에 대한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태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전통 혼례와 서양식 혼례에 대한 의식과 혼인관행의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등의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의 기간은 2002년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대상 선정 및 사전답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5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미비한 부분은 전화로 질의하였으며, 재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2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2002년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질문지와 면담을 병행하였다. 질문지는 조사지역 향교의 전통 혼례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 혼례 절차, 혼례복의 종류와 유통과정 등을 질의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실물은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소재, 색, 문양, 형태, 치수를 실측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II. 조선 후기의 혼례 절차와 혼례복

1. 조선 후기의 혼례 절차

혼례의식(婚禮儀式)은 고래(古來)로부터 삼서육례(三誓六禮)라 하여 사대부가에서는 엄격한 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예기(禮記)』 혼의조(婚儀條)에서는 '혼례는 장차 이성(二姓)의 좋은 것을 합쳐 위로는 종묘(宗廟)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이어 조상(祖上)의 대를 잇게 하기 때문에 군자(君子)는 이를 소중히 한다.'⁴⁾고 하였으며, 그 의식은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를 갖추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거(典據)로 한 중국의 혼례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조선조에서 가장 보편화된 혼례규범은 이재(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중심으로 한 혼례라 하겠다.⁵⁾ 그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혼례 절차

절차	내용	
議婚	혼인상대를 구하여 혼인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중매를 통해 혼인에 대한 의사를 주고받는 단계	
納采	신랑집에서 공식적으로 혼인을 알리는 예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집에 보내는 단계	
納幣	혼례날이 결정된 후, 혼인의 구체적인 증표로 신랑집에서 혼서와 폐백을 담은 함을 보내는 것	
親迎	醮禮	혼례식을 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맞으라고 명하는 의식
	初行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집에 혼례식을 올리러 가는 것을 말한다.
	婚禮式	소례와 대례가 있는데, 소례는 奠雁의 예이고, 대례는 交拜의 예와 合卺의 예이다. *전안(奠雁)례 : 혼례식 중 신랑이 기러기를 바치는 의식 *교배(交拜)례 : 신랑과 신부가 절하며 인사를 교환하는 상견의 예 *합근(合卺)례 : 합환(合歡)의 잔을 교환하는 예
	子歸	신부가 정식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의식으로, 신행(新行)이라고도 한다.
	見舅姑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시부모께 인사드리는 예, 즉 폐백을 행하는 것
	見舅廟	신부가 시댁의 가묘에 알현(謁見)하는 예
	壻見婦之父母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찾아뵙는 예로, 근친(近親)이라고도 한다.

2. 조선 후기의 혼례복

1) 신랑예복

단령(團領)은 관복(官服) 또는 관대(冠帶)라고도 하는데⁶⁾ 이는 문·무관의 공·상복으로의 착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상복과 공복에서의 단령이 각기 다르게 착용되었는데⁸⁾, 혼례시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것은 상복 단령이다.

『사례편람』에서는 혼례시 신랑은 성복(盛服)을 하는데, 이때 사모와 단령, 품대 그리고 흑화를 준비한다고 하였다.⁹⁾ 그리고 『현토주해 사례편람』에서는 첫 장가를 들 때에는 붉은색이며, 재혼이나 세 번 장가가가는 경우에는 검은색 단령을 입는다고 하였다.¹⁰⁾

결국 이것은 혼례날 백성으로서 가장 큰 성장(盛裝)이라고 할 수 있는 당상관의 흉단령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감히 당상관의 복장을 착용하는데 무리가 있어 흉단령과 더불어 흑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짐작한다.

2) 신부예복

원삼(圓衫)은 조선 후기의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 중의 하나로, 『사례편람』에 의하면 ‘원삼은 큰 옷으로 색깔 있는 견(緞)이나 명주를 사용하여 만든다. 비요(備要)에 이른바 원삼은 곧 가례의 대수(大袖)라 하였는데, 옷깃을 맞대어 뒤는 길고 앞은 짧게 한다. 또 소매 끝에 채색 비단으로 두어 층을 댈다. 이것을

연향수(燕香袖)라 하는데 꺾이하고 정당하지 못하다. 만일 연향수를 없애고 앞뒤의 길고 짧은이 없어서 치마와 더불어 가지런히 한다면 소매 있는 배자가 될 수 있다.’¹¹⁾라고 하였다.

염의(褙衣)는 『사례편람』에 의하면 ‘검은색으로 저고리와 치마가 이어져 있고, 옷감은 능기류(綾綺類)를 사용하며, 흰 비단으로 안을 받치고, 붉은색으로 단을 친다. 소매길이는 지척(指尺)으로 두 자 두 치, 소매부리는 한 자 두 치로 일명 순의(純衣)라고도 한다. 살펴보건대 염의, 소의(宵衣), 단의(襍衣)는 모두 같은 것이나, 염의는 붉은 선을 두르는 것만 다르다.’고 하였으며,¹²⁾ 『현토주해 사례편람』에서는 ‘소매가 넓고 결이 터져 대개 예전의 중치막과 같은데, 붉은 공단에 화려한 수를 놓은 것으로 신랑 신부가 맞절할 때와 시부모 뵈는 때에 입는 것이다.’¹³⁾라고 하였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신부는 결혼한 다음날 소의를 입고 시부모님을 뵈는다. 소의는 띠가 달린 것으로 염의와 비슷한데 단이 없는 것이 다르다. 소의가 없으면 대의장군(大衣長裙)으로 한다.’¹⁴⁾고 하였다. 즉 소의(宵衣)는 대의(大衣), 원삼(圓衫), 장삼(長衫)과 함께 혼례 때 시부모님께 예를 갖추는 때 착용하였다.

Ⅲ. 현행 전통 혼례복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전통 혼례복에 관한 연구는 점차 세분화되어 신경애¹⁵⁾, 박금주¹⁶⁾, 홍나영¹⁷⁾ 등은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 혼례복을 고찰하고, 현행 혼례복의 실태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 혼례복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통 혼례복의 실태조사에 앞서 현행 전통 혼례복에 대한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전통 혼례복에 대한 제언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1. 조사내용 및 방법

전통 혼례 및 혼례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 혼례를 거행하고 있는 향교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3문항이며, 성별·연령·결혼여부·고향·혼례 형태에 따라 전통 혼례 및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은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300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미혼여성이 111명(38.9%), 미혼남성이 71명(24.9%), 기혼여성이 53명(18.6%), 기혼남성이 50명(17.6%)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인구통계변인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121	42.5
	여성	164	57.5
결혼여부	기혼	104	36.5
	미혼	181	63.5
연령	20대	173	60.7
	30대	50	17.5
	40대	46	16.1
	50대 이후	16	5.6
고향	광주	92	32.3
	보성	46	16.2
	나주	47	16.5
	능주	46	16.1
	고흥	44	15.4
	기타	10	3.5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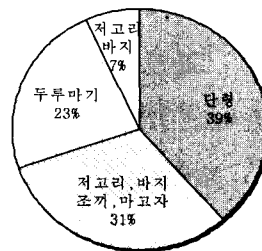
1)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식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혼례 형태, 전통 혼례복의 종류, 전통 혼례장소,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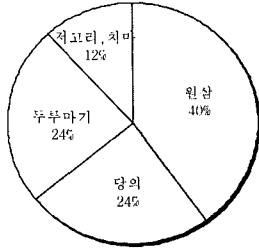
우선 응답자의 78.9%(225명)가 서양식 혼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전통 혼례보다 서양식 혼례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이 서양식 혼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29.1%:83명), 전통 혼례식을 행하는 장소가 불편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24.2%:69명), 전통 혼례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19.6%:56명), 전통 혼례복은 서양식 혼례복에 비하여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때문(10.5%:36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21.1%(60명)만이 전통 혼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싶어서(50.0%:60명), 서양식 혼례는 상업적·획일적이어서(26.7%:16명), 부모님이나 주변분들의 권유로(16.7%:10명), 전통 혼례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6.7%:4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 혼례복에 대하여 단령과 원삼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28.4%(81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현대인들은 한복을 자주 입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통 복식에 대한 용어를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랑예복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림 2> 신부예복 용어에 대한 이해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는 문항에 대하여, 전통의 방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혼례복이라면 서양식 혼례복보다 아름답다(60.7%:173명), 서양식 혼례복보다 아름답지만 입는 방법이 까다롭고 불편하다(28.7%:82명)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전통 혼례복은 서양식 혼례복보다 아름다우나, 전통의 양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입는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3> 전통 혼례복에 대한 의식

구분	남성 (N=121)	여성 (N=164)	전체 (N=285)
서양식 혼례복보다 아름답다	71 (58.7%)	102 (62.2%)	173 (60.7%)
입는 방법이 어렵고 불편하다	37 (30.6%)	45 (27.4%)	82 (28.7%)
서양식 혼례복이 더 아름답다	8 (6.6%)	12 (7.9%)	21 (7.4%)
개성이 없다	5 (4.1%)	4 (2.4%)	9 (3.2%)

2) 혼례관행에 대한 의식

혼례관행에 대하여 납폐, 폐백 의례에 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함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집에서 원하는 경우 행하는 것이 좋다(47.4%:135명), 함을 보내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므로 행하는 것이 좋다(33.3%:95명), 함을 보내는 것은 허례허식이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19.3%:55명)고 나타났다.

또한 함 속에 받고 싶은 또는 받았던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72.3%(206명)가 옷감이나 옷을 생략하고자

<표 4> 납폐 의례에 대한 의식

구분	남성 (N=121)	여성 (N=164)	전체 (N=285)
상대방의 집에서 원하는 경우 행한다	55 (45.5%)	80 (48.8%)	135 (47.4%)
전통적인 관습이므로 행한다	46 (38%)	49 (29.9%)	95 (33.3%)
허례허식이므로 행하지 않는다	20 (16.5%)	35 (21.3%)	55 (19.3%)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대인들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납폐 의례의 간소화를 원하며, 이를 행한다 하더라도 옷감이나 옷을 생략하여 혼례관행이 간소화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양식 혼례 절차 중 폐백 의례에 대하여 응답자의 80.7%(230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92.6%(264명)가 신랑과 신부 모두 폐백예복 안에 한복을 입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폐백이라는 간단한 의례를 통해서라도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었다.

3) 전통 혼례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전통 혼례복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 혼례복의 개선점 및 간소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61.1%(174명)가 전통 혼례복이 현실에 맞게 절충적으로 변형된다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입는 절차와 방법이 어렵고(47%:134명), 대중화하기에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30.9%:88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2.1%(63명)는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어 개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전통 혼례복의 개선에 대한 의식

구분	남성 (N=121)	여성 (N=164)	전체 (N=285)
입는 절차와 방법	65 (53.7%)	69 (42.1%)	134 (47%)
비용부담	40 (33.1%)	48 (29.3%)	88 (30.9%)
디자인	16 (13.2%)	47 (28.6%)	63 (22.1%)

전통 혼례복의 변형을 원하는 부위에 대하여 전체적인 외형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7.2%(163명)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 62.6%(102명)가 부분적인 변화를, 30.7%(50명)가 서양식 혼례복과의 혼합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재, 색상, 문양 등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변화를 원하는 응답자 중 대부분(63.9%:39명)이 본건(silk)소재로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인들은 전통의 양식으로 고증된 혼례복이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 혼례복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입는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제작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었다.

III. 현행 전통 혼례복의 실태 및 변화양상

1. 현행 전통 혼례복의 실태

문헌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혼례복의 종류와 기능, 소재 및 형태 등을 예서(禮書)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각 지역의 전통 혼례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광주향교의 전통 혼례복¹⁸⁾

광주향교의 단령은 <그림 3>과 같이 청색으로 한벌만 구비되어 있다. 단령의 소재는 걸감은 청색의 폴리에스테르 공단, 안감은 홍색의 통사로 모두 화학섬유로 제작되었다. 단령의 형태는 옷깃의 파입이 깊고 둥글며, 깃과 흉배의 둘레에 황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단령의 구성상의 특징으로는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으며, 소매와 길이가 진동선에서 이어져 있다.

원삼은 <그림 4>와 같이 연두색이며, 소재는 걸감은 폴리에스테르 공단, 안감은 걸감보다 짙은 녹색의 통사로 역시 화학섬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삼의

형태는 앞길이 뒷길보다 약 5cm정도 짧고, 깃 바로 아래 홍색의 고름을 달아 여미도록 되어 있다. 원삼의 양 옆길은 진동에서부터 트여 있고,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으며, 앞길과 뒷길, 그리고 깃과 한삼에 자수가 놓아져 있다.



<그림 3> 광주향교의 단령



<그림 4> 광주향교의 원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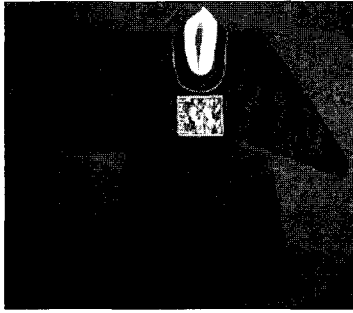
2) 보성향교의 전통 혼례복¹⁹⁾

보성향교의 단령은 <그림 5>와 같이 소재는 걸감과 안감 모두 화학섬유를 사용하였는데, 동정은 백색의 면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단령의 형태는 옷깃이 둥글고 깊이 파여 있으며, 깃 둘레에는 황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홍색 바탕에 쌍학 흉배가 있는데, 그 둘레에도 황색의 선장식이 있다. 길의 양옆에 넓은 무가 달려 있으며, 위 5cm는 상침을 하여 고정하고, 그 아래부터는 트여 있다.

원삼은 <그림 6>과 같이 길의 색은 연두색이며, 깃과 고름은 홍색이다. 소매의 색동배열은 홍·황·청·분홍·연두색의 순으로 되어 있다. 원삼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공단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는 광수(廣袖)이고 수구에는 백색 한삼이 붙어 있다. 앞길과

뒷길의 하단과 한삼에는 목단 문양, 앞길 상단에는 평 문양의 자수가 있으며, 앞길과 뒷길 길이의 차이는 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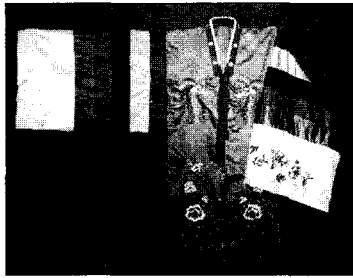
한삼이 붙어 있다. 앞길과 뒷길의 하단과 한삼, 깃에는 목단 문양, 앞길 상단에는 평 문양의 자수가 있다.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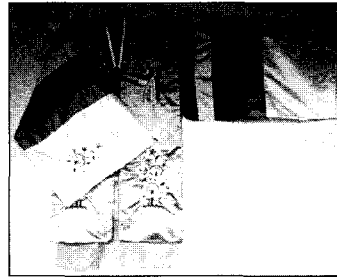
<그림 5> 보성향교의 단령



<그림 7> 나주향교의 단령



<그림 6> 보성향교의 원삼



<그림 8> 나주향교의 원삼

3) 나주향교의 전통 혼례복²⁰⁾

나주향교의 단령은 <그림 7>과 같이 소재는 겹감은 청색으로 폴리에스테르 공단인 화학섬유를 사용한 반면 안감은 홍색의 운문이 있는 감사를 사용하였다. 단령의 형태는 광주향교의 단령과 차이가 거의 없이 길과 소매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동일하며,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고, 깃과 흉배의 둘레에 황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길의 양옆에 넓은 무가 달려 있고 무 아래 5cm부터 트여 있다.

원삼은 <그림 8>과 같이 길의 색은 겹감과 안감이 모두 연두색이고, 깃과 고름은 홍색이며, 소매의 색동은 8cm너비로 홍·황·청·분홍·연두색의 순으로 되어 있다. 폴리에스테르 공단을 소재로 하였으며, 깃은 맞깃으로 너비가 5cm이다. 원삼의 형태는 뒷길이 앞길보다 8cm정도 길며, 소매는 광수(廣袖)이며 색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구에는 33cm 너비의

4) 화순 능주향교의 전통 혼례복²¹⁾

능주향교의 단령은 <그림 9>와 같이 겹감은 청색의 운문이 있는 진감사, 안감은 홍색의 통사로 되어 있는데 겹감이 얇아 홍색의 안감이 겹으로 드러나 이중색의 효과를 보인다. 깃 둘레에는 황색의 선이 둘러져 있으며, 흉배는 없다. 단령의 품은 62cm로 다른 지역의 단령에 비해 큰 편이나 고대는 22cm로 좁고, 깃 깊이가 매우 깊다.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으며,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동일하다.

원삼은 <그림 10>과 같이 길은 안감과 겹감이 모두 연두색이고, 깃과 고름은 홍색이며, 화학섬유를 소재로 하였다. 원삼의 앞길에는 평과 목단 문양이, 뒷길과 한삼에는 목단 문양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소매는 색동과 한삼으로 되어 있으며, 뒷길은 앞길보다 10cm가 길다.



<그림 9> 능주향교의 단령



<그림 11> 고흥향교의 단령



<그림 10> 능주향교의 원삼



<그림 12> 고흥향교의 원삼

5) 고흥향교의 전통 혼례복²²⁾

고흥향교의 단령은 <그림 11>과 같이 겹감은 짙은 청색의 폴리에스테르 공단을, 안감은 홍색의 갑사를 사용하였으며, 동정은 백색 갑사를 사용하였다. 깃은 오른쪽으로 여며 매듭단추로 어깨에 고정하는 형태이며, 깃 둘레에 황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깃 너비에 비하여 동정너비가 매우 넓으며, 전체적인 치수가 조사된 다른 지역의 단령에 비해 조금 크다. 길의 양옆에는 무가 달려 있는데, 위로 10cm는 상침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트여 있다.

원삼은 <그림 12>와 같이 길은 겹과 안이 모두 연두색이고, 깃과 고름은 홍색이며, 소매의 색동은 홍·황·청·백·분홍·연두색의 순으로 되어 있다. 원삼의 소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테르 공단을 소재로 하였으며, 깃은 맞깃이고 여밈은 함임으로 되어 있다. 등과 어깨에 솔기가 없으며, 뒷길의 길이는 130cm로 다른 지역의 원삼에 비해 긴 편이고 뒷길이 앞길보다 20cm가 길어 다른 지역의 원삼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

2. 현행 전통 혼례복의 변화양상

조선 후기에는 혼례 절차와 신분에 따라 혼례복의 종류 및 장식기법 등이 달랐으나, 현재 향교에서 전통 혼례식에 입는 혼례복은 청단령과 녹원삼을 일률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혼례복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태, 구성 요소 등의 면에서 조선 후기의 혼례복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전통 혼례복을 중심으로 박물관²³⁾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후기의 혼례복을 고찰하여 현재 향교에서 착용되고 있는 혼례복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신랑예복

<그림 13>은 사영(思穎) 김병기(金炳冀)(1818~1875) 일가(一家)에서 착용한 대례복으로 김병기의 장손인 김승진(金升鎭)이 25세 재취(再娶)시 착용한 단령이다.²⁴⁾ 겹감은 홍색 화문사이며, 안감은 홍색

명주이다. 겹은 둥근 것, 안은 곧은 것으로 만들어 안팎을 연결했다. 양옆의 부를 뒤로 당겨 꿰매 고정했으며, 소매는 두리 소매이다. 진동선 옆에 각대를 거는 고리가 달려 있으며, 겹섶 쪽에는 고름이 두 개 달려있다.



<그림 13> 김병기 일가 단령
(고려대박물관 소장)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단령은 포의 안감에 백색의 직령 안깃을 달아 겹으로 하였다. 또 소매의 폭이 넓고 화장이 길고, 수구만 남기고 막혀 있으며, 배래의 선도 직선에 가깝게 제작되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인 단령과 현재 향교에서 착용되는 단령의 치수를 실측하여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이 파악되었다.

<표 6> 단령의 치수 비교

(단위 : cm)

종류	부위	길이	뒷폭	화장	진동	소매폭	수구
전통 단령 (고려대 박물관)		127	52	91.5	27	50	24.5
현행 단령	광주향교	118	56	80.5	30	50	20.5
	보성향교	121	57	80	30	54	23
	나주향교	121	62	80	30	46	23
	능주향교	123	56	80	29	53	25
	고흥향교	124	54	79	29	53	24

조선 후기의 단령과 현행 단령을 비교해보면 먼저 소재에 있어서 조선 후기의 단령이 견을 소재로 하였던 것에 반해 현행 단령은 화학섬유를 소재로 하였다.

단령의 형태에 있어서 품과 진동이 커진 반면 길이와 화장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령의 품과 진동이 커진 것은 현대인들의 평균신장이 커짐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로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길이와 화장이 줄어든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단령의 고름은 겹고름 1쌍과 겹고름 밑에 안감으로 고름을 한 개 더 붙여 만들어, 3개의 고름이 맺었을 때 색의 조화를 이루게 한 반면, 현행 단령은 겹고름만 있다. 그리고 현행 단령은 깃 둘레와 흉배 가장자리를 황색의 선을 둘러 장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봉제구성에 있어서 조선 후기의 단령은 등과 어깨에 솔기가 있고,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소매 쪽으로 나와서 있는데 반하여, 현행 단령은 어깨와 뒷중심에 솔기가 없으며,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동일하다. 이러한 차이는 봉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단령과 현재 향교에서 착용되고 있는 단령은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소재나 장식적인 면, 봉제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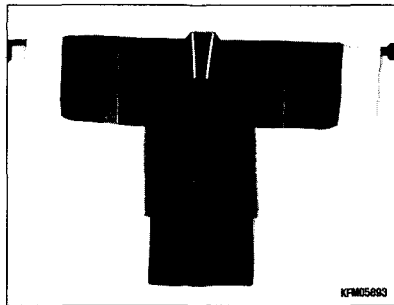
2) 신부예복

<그림 14>는 김병기 부인의 녹원삼으로 겹감은 녹색 수복도류문단(壽福桃榴紋緞)이고, 안감은 홍색 화접란문단(花蝶蘭紋緞)이며, 안단은 청색 운보문단(雲寶紋緞)이다. 소매 끝에는 홍색과 황색의 색동과 백색의 한삼이 있고, 여기에 수복화문(壽福花紋)을 금박(金箔)하였다. 겹과 안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에 남색의 안단을 대고 도련을 오그려 연결하였다.

<그림 15>는 광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민의 혼례용 원삼으로 겹감은 녹색이고 안감은 홍색이다. 깃과 고름이 홍색인 것이 특징이며, 소매는 여섯 가지 색의 색동과 한삼이 연결되어 있고,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동일하다.



<그림 14> 김병기 일가 원삼
(고려대박물관 소장)



<그림 15> 원삼
(광주민속박물관 소장)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인 원삼과 현재 학교에서 착용되는 원삼의 치수를 실측하여 비교한 결과 <표 7>과 같이 파악되었다.

<표 7> 원삼의 치수 비교

(단위: cm)

종류	부위	길이		뒷폭	화장	진동	소매폭	한삼	색동	
		앞길	뒷길						색	너비
반가용 원삼 (고려대박물관)		126	151	45	90	24.5	86	17.5	홍,황	
서민용 원삼 (광주민속박물관)		90.5	122	50	86	23	44	18.5	홍,청,황홍,연,자	
현 행 원 삼	광주향교	115	119.5	61	111.5	27	52.3	33	홍,황,청,분,연	
	보성향교	114	123	61	98	27	53	31	홍,황,청,분,연	
	나주향교	110	122	59	102	31	51	33	홍,황,청,분,연	
	능주향교	107	116	56	102	29	53	33.5	홍,황,청,분,연	
	고흥향교	110	130	59	110	30	47	35	홍,황,청,백,분,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반가용 원삼은 길감은 녹색 직금단(織金緞)을, 안감은 홍색 공단(貢緞)을 사용하였으며, 안감의 둘레에는 청색의 선을 들렀다.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길고, 뒷길보다 앞길이 30cm 이상 짧다. 소매는 넓고 길며, 소매 끝에는 홍색과 황색의 색동과 백색 한삼이 달려있다. 봉제의 구성은 어깨와 뒷중심에 솔기가 있으며,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소매쪽으로 나와 있다. 백색 갑사나 문단 등을 소재로 한 동정은 깃의 안쪽에 넓게 달아주고, 맞깃의 여밈은 칠보단추 등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원삼의 소재는 길감으로 폴리에스테르 공단, 안감으로 나일론 갑사 또는 통사 등의 화학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청색의 선장식이 없다.

또한 형태 면에서 뒷길이 앞길보다 길지만 10cm 이상의 차이는 없고, 소매폭은 좁다. 그리고 소매 끝에 달리는 색동의 배색은 기본적으로 홍·황·청·분홍·연두색으로 다섯 가지 이상이며, 그 너비도 10cm 정도로 매우 넓다. 반면 색동 끝에 달린 한삼은 길어졌으며, 여기에 드림 수건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깨와 뒷중심에 솔기가 없고,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일치한다. 이것 역시 현행 단령과 마찬가지로 봉제구성의 편의를 위한 변화로 보인다. 또한 동정은 길감의 바깥쪽에 약 1cm가량의 너비로 달고, 맞깃의 여밈은 단추 대신 짧은 고름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장식적인 면을 비교해보면 반가용 원삼의 소재는 수복도류문단 등 직물 표면에 문양이 있는 감을 사용하여 그 위에 앞뒷길의 어깨와 뒷길 중간, 앞뒷길 밑단에 수복화문 등을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러나 현행 원삼은 표면에 무늬가 없는 감을 사용하여 금박 대신 목단이나 평, 봉황 등을 앞뒷길 밑단과 앞길 가슴, 한삼 등에 수를 놓았다.

봉제구성상 특이할만한 점은 반가용 원삼은 앞길과 뒷길의 밑단부분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곡선을 그리는데, 이것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밑단이 곡선인 형태에 가깝다. 또한 원삼에 두르는 청색의 선 역시 시대가 올라갈수록 안과 겉이 따로 떨어져 있으며, 청색 선이 겉의 안쪽에 안의 겉쪽에 둘러져 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말엽에 와서는 안감에 청색 선을 대고 안과 겉을 붙여서 바느질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현행 원삼은 밑단이 직선형태이며, 길 안쪽에 두르는 청색의 선도 없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서민용 원삼과 현행 원삼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서민용 원삼과 현행 원삼을 비교해보면, 먼저 서민용 원삼은 소재에 있어서 사직 견을 사용하였고, 겉감은 녹색, 안감은 홍색으로 하였으며, 장식적인 면에서 금박이나 금직, 자수 등의 장식은 없다. 그러나 현행 원삼은 화학섬유를 소재로 하여 겉감과 안감을 모두 연두색으로 하였으며, 앞뒷길 아랫부분과 앞길 위, 한삼과 깃에 목단 또는 평 등의 문양을 자수하여 장식한 것이 서민용 원삼과 다르다. 또한 서민용 원삼은 깃과 고름이 모두 홍색이지만 현행 원삼의 경우 고름의 색깔은 길과 같은 연두색인 곳도 있었으며, 원삼의 안을 겉과 같은 연두색으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치수를 비교해보면 품과 진동은 커진 반면 앞뒤의 길이는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반가용 원삼이나 단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형태 면에서 서민용 원삼은 맞깃에 다는 동정이 겉깃의 바깥쪽에 약 1cm 너비로 달려 있으며, 소매는 홍·황·청·녹·분홍·자주색 등의 여섯 가지를 7~8cm 너비로 하여 색동을 배치하였다. 또한 서민용 원삼의 한삼은 반가용 원삼과 달리 비교적 넓으며, 소매 폭이 좁고, 맞깃의 여밈도 단추 대신 홍

색의 짧은 고름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는 반가용 원삼에 비하여 매우 짧고, 뒷길이 앞길보다 긴 것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현행 원삼과 같이 밑단이 직선인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착용되고 있는 신부 예복인 원삼은 형태와 구성 요소에 있어서 조선 후기 반가에서 착용된 원삼보다 서민용 원삼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착용되고 있는 전통 혼례복은 지역에 따른 특징이 없이 형태 면에서 거의 같은 구성과 장식, 문양, 치수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전통 혼례복의 유통과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광주에 있는 시장의 상회²⁵⁾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전통 혼례식을 하고 있는 향교에서 착용되고 있는 혼례복을, 제작 대행업체가 문헌에 대한 고증 없이 막연히 주관에 따라 제작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및 제언

조선 후기와 현행 전통 혼례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랑의 예복은 단령과 사모관대가 그대로 착용되고 있으며, 신부의 예복은 원삼이 착용되고 있으며, 염의, 소의, 활옷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혼례복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의 혼례복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되고 있는 전통 혼례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신랑 예복인 단령은 형태 면에서 전통 단령과 매우 유사하나, 깃과 흉배의 둘레에 황색의 선을 둘러 장식적인 면을 부여하였다. 단령의 여밈은 겉깃을 오른쪽 어깨에 매듭단추로 고정하였고, 앞은 두 개의 고름을 이용해 여밈은 형태였다. 이러한 특징은 봉제의 편의를 위한 것이나, 그에 따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장식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 예복인 원삼은 형태 면에서 조선 후기의 서민용 원삼과 매우 유사하였다.

둘째, 신랑과 신부 예복 모두 매우 간소화된 봉제 구성을 보인다. 우선 단령과 원삼 모두 뒷중심과 어깨에 솔기가 없으며, 소매와 길의 이음선이 진동선과 동일하다. 또한 단령의 무는 앉았을 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끈을 다는 대신 위에서 약 20cm 정도 상침을 하였다. 또한 단령과 원삼 모두 조선 후기의 것 보다 품과 진동은 넓어졌으나 길이와 소매폭은 현저히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혼례복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소재와 색에 있어서도 간소화와 봉제의 편의를 위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신랑과 신부의 예복 모두 표면에 무늬가 없는 실용적인 화학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신랑 예복은 걸감으로 청색을 사용하고 안감으로는 홍색을 사용하였으나, 신부 예복은 걸감과 안감 모두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신부 예복의 경우 원삼과 활옷의 형태가 복합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즉 금박으로 장식을 했던 전통적인 원삼과 달리 뒷중심에 솔기를 없애고 앞길과 뒷길, 깃, 한삼 등에 꿩, 목단 등의 문양을 자수로 놓고, 깃 바깥쪽에 동정을 다는 등 활옷과의 절충적인 구성과 장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전통 혼례식에서 착용되는 혼례복은 형태 면에서는 일부 전승이 되었으나, 각각의 구성 면에서는 우리 옷에 대한 본연의 뜻을 파악하고 예복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에 전통 혼례복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양식 혼례가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전통 혼례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전통 혼례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이를 홍보하고, 전문적으로 예식을 거행하면서 혼례복을 대여하는 전통 혼례식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교 관계자, 예복 제작 대행업체, 그리고 전통 혼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례복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 혼례복 제작 대행업체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관적으로 행해지는 혼례복에 대한 변형을 막

고 전통의 양식을 따른 혼례복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 사이즈의 규격화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대·중·소의 예복이 구비되어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 체형에 맞는 예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획일화되고 변형되고 있는 전통 혼례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문헌에 근거하여 조선시대에 착용되었던 다양한 혼례복이 고증 절차를 거쳐 제작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통 혼례복이 제작되어 혼례복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통 혼례복의 원형으로 조선시대의 반가와 서민 사이에 입혀졌던 혼례복을 그 근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대 생활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관혼상제. p. 7.
- 2) 2002. 9. 18. 광주 롯데백화점 전통 명절맞이 전통 혼례식 재현..., 2002. 9. 26.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대동풀이... 재학생 대상 전통 혼례식 거행...
- 3)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는 곳이 향교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주최하여 행하는 전통 혼례식도 향교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 있는 모든 시·군을 조사지역에 포함시켰으나,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통 혼례식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종 조사대상은 현재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는 향교의 소재지로 한정되었다.
- 4) 『禮記』, 婚儀條.
昏禮者將合二姓之好上以事宗廟而下以繼後世也故君子重之.
- 5)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혼례 절차는 납채(納采) 의례에 앞서 청혼(請婚) 및 허혼(許婚)의 예(禮)인 의혼(議婚)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문명, 납길, 납징, 청기의 각 의례를 통합하여 납폐(納幣)로 하였으며, 혼례의 마지막 의식을 예기(禮記)와 같이 친영(親迎)으로 함으로써 혼례의식을 사례(四禮)로 간소화하였고, 친영 이후

- 의 절차로 현구모(見舅姑), 현가묘(見家廟), 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 6) 최남선 (1948).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편. 동명사, p. 122.
 - 7) 이순홍 (1992).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p. 300.
 - 8) 상복(常服) 단령은 사모(紗帽), 단령포(團領袍), 대(帶), 흉배(胸背), 화(靴)로 이루어지며, 공복(公服) 단령은 복두(幘頭), 단령포, 대, 홀(笏), 어대(魚袋), 화로 이루어진다.
 - 9) 『四禮便覽』, 卷二, 昏禮, 親迎. 初昏婿盛服. 諸具, 紗帽, 團領品帶, 黑靴.
 - 10) 『懸吐註解 四禮便覽』, 新式婚禮. 卽軟紅團領(분홍관디)이니 初娶에는 紅色이오 再三娶에는 黑色.
 - 11) 『四禮便覽』, 卷三, 喪禮. 圓衫卽大袖用色絹或紬爲之, (按) 備要所謂圓衫卽家禮之大袖而俗制圓衫則對衿後長前短又於袖端以彩帛施數層謂之(燕香袖) 詭異不經若去燕香袖使前後無長短得與裙齊則爲有袖背子.
 - 12) 『四禮便覽』, 卷二, 昏禮, 親迎. 衾衣. 色玄連衣裳不下異色用綾綺之屬爲之以素紗爲裏以縹綠衣下袂長二尺二寸袂口一尺二寸(指尺) 一名衣. 歷考禮書衾衣宵衣祿衣同是一衣而其制之可據者不過玄衣下殊裳以..... 而衾則但有縹綠爲異耳.
 - 13) 『懸吐註解 四禮便覽』, 卷二, 昏禮, 奠雁. 其制가 廣袖傍折에 畧如舊曰 등치막而以 紅段爲質호고 燦爛紋繡者니 婿婦交拜及見舅姑時所着.
 - 14) 『四禮便覽』, 卷二, 昏禮, 親迎. 明日夙興婦見舅姑, 婦夙興盛服(士昏禮)宵衣, 帶具制見上離女條衾衣註但不施綠無則代以大衣長 裙.
 - 15) 신경애 (1987). 전통 혼례복의 실태에 관한 고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9.
 - 16) 박금주 (1988). 사례편람의 혼례복과 현행 혼례복과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pp. 1~104.
 - 17) 홍나영 (2000). 20세기 한국 혼례(폐백)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4(4), pp. 594~604.
 - 18) 광주향교에서는 매년 백여 쌍의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14일 백경환·박영선, 4월 14일 김용혁·비키씨의 결혼식을 참관하였으며, 4월 20일 전통 혼례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 19) 보성향교에서는 연평균 10회 이상 전통 혼례식을 하고 있다. 2002년 8월 19일 전교(典校)와 전통 혼례 담당자 안중덕씨와의 면담조사 후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9월 8일 선정희·임은정씨의 결혼식을 참관하였다.
 - 20) 나주향교에서는 약 40여 년 전부터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금은 연평균 10여 쌍 정도 전통 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2002년 8월 20일 임원택 전교와 전통 혼례 담당자와 면담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
 - 21) 능주향교에서는 10년 전부터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2년 8월 21일 하인석 전교와 전통 혼례의 사진촬영을 담당하면서 전통 혼례복을 대여하고 있는 고향사진관 박봉근씨와의 면담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
 - 22) 고흥향교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전통 혼례식을 행하고 있으나, 1992년부터 매년 11월 1일 '군민의 날'에 옥외 행사로 농업고등학교 광장에서 전통 혼례식이 거행된다. 2002년 8월 23일 유성기 전교와 전통 혼례 담당자와의 면담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
 - 23) 경희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광주 민속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등에 조선 후기의 혼례복이 소장되어 있다.
 - 2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편下(복식, 자수, 신앙자료), p. 28.
 - 25) 보성향교 :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소재 '○○혼구사'에서 구입, 나주향교 :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소재 '○○춘추'에서 구입, 능주향교 : 서울 종로3가의 '만물상회'에서 구입, 고흥향교 : 광주광역시 양동 북개상가 '금남승복'에서 구입.